

임실군 내년 국비 확보 잔걸음

박진두 군수권한대행 국회 방문 옥정호 수변도로 · 노후상수관망 등 건의

임실군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빈틈없는 철벽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 민 군수의 6·13 지방선거 출마로 박진두 군수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 임실군은 군민들의 삶을 바꿀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과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현안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잔걸음을 하고 있다.

28일 박진두 군수 권한대행은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 사업별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의원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박 권한대행은 국회를 방문해 임실군 최대 현안사업인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과 임실 이도지구 병목

지점 개선사업, 임실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또한 성수면과 관촌면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 중인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의 공모선정과 임실군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9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컴퓨터 단층 촬영장비(CT)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공조를 요청했다.

현재 군은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응 및 주요현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처별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동향 파악을 적극 나서는 등 공격적인 예산확보에 나서고 있다.

임실군의 국가예산 중점관리대상은

60건으로 총 사업비는 5617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액은 667억원이다.

주요 추진사업은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 등 외에도 반려동물테마공원 조성, 반려동물 공공화장실 지원사업,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으로 군은 이들 사업의 국비확보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미 군은 100억원대 규모의 임실치즈테마공원 조성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다.

박진두 군수권한대행은 "5월말은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편성안이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로 직원들 모두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국가예산 확보에 대응해야 한다"며 "기재부 심사가 시작되는 6월부터는 동향 파악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광한루원 춘향애부각 홍보 · 판매장 개장

남원 공동브랜드... 45종의 다양한 제품 한 자리 찹쌀 풀 바르기 · 건 부각 튀기기 등 체험 행사도

남원시부각협동조합(대표 김계식)은 광한루원에 춘향애부각 전시·판매장을 개장했다. 춘향애부각은 남원 지역을 중심으로 전래 되어오던 김부각(국내 생산량 60%, 한국식품연구원 자료)의 표준화된 맛을 연구화해서 내놓은 남원 부각의 공동브랜드이다.

남원의 부각 관련 9개 업체가 모여

결성된 부각협동조합은 2016년 말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사업비 6억)에 공모·선정 되었고, 1년차 사업 평가 우수등급으로 받은 인센티브를 포함 3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올해 2년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춘향애부각 6차 산업 특화를 통해 남원의 대표 특산물인 부각의 생산 전 과정(1차 생산 → 2차 가공

→ 3차 체험·판매)에 걸쳐 복합 산업화로 이어지는 경제활동 다양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경외상가 개장은 그 정점에 있는 사업으로, 협동조합 9개 회원사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각각의 노하우로 생산된 제품들을 내놓았는데, 김부각, 감자부각, 다시마부각, 가죽부각 등의 단품과 여러 제품이 혼합된 패키지가 춘향애부각을 비롯한 45종의 다양한 상품이 진열되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남원 생산 부각 제품을 한 자리에서 비교·시식 해 보고 구입 선택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광한루 주변이라는 이점을 살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찹쌀 풀 바르기, 건 부각 튀기기 등 부각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행사도 준비 중에 있다.

지역농업특성화로서 춘향애부각을 지원 중인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원중)는 마케팅, 워크샵 교육 등 협동조합 구성원들의 마인드 향상과 더불어 HACCP 기준에 적합한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가공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내 전 회원사의 소규모 HACCP 인증을 통해, 남원 생산 부각이 건강하고 깨끗한 전통 먹거리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부각협동조합은 광한루원에 춘향애부각 전시·판매장을 개장했다.



순창 적성면 자전거길에 셋노란 금계국이 만개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순창 적성면 자전거길 금계국 만개

유등면~화탄마을 약 5km 구간 노란 미소

순창 적성면 자전거길에 셋노란 금계국이 만개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28일 순창군에 따르면 적성면의 금계국 자전거길은 유등면 외리에서 화탄마을을 지나는 약 5km 구간이며 유등면에서 사업을 시행했다.

금계국이 만개하면서 최근 자전거 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연인들의 방문도 이어지면서 적성면 자전거 길에 사람이 붐비고 있다.

적성면 관계자는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전거

길에 관광객과 지역주민 붐비고 있다"면서 "맑은 분들이 와서 5km 구간 금계국 길의 아름다움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동계면 장군목에서 풍산면 향가 유원지까지 30km 구간 자전거 길을 조성했으며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간직한 섬진강과 세월의 풍파를 머금은 기암바위, 향가유원지의 터널과 이색적 다리 등 순창만의 독특한 자연 풍광을 느끼며 자전거 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자전거 동호인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순창=이영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 '한여름밤의 체조광장' 운영

남원시가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시민 건강증진 프로젝트로 '한여름 밤의 에어로빅 체조광장사업'을 오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랑의 광장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전문체조 강사의 지도 아래 국민건강체조, 에어로빅스체조, 방송댄스 등 다양한 생활 체조를 무료로 배울 수 있으며,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한여름 밤의 에어로빅스체조광장'은 시의 시민건강증진 프로젝트로 기존의 광장프로그램(새벽광장 6개, 저녁광장 1개)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여름시즌 특별기획으로 추가 운영하는 남원시의 자체적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4,600여 명이 참가하여 무더위를 이겨냈다.

또한 사랑의 광장의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분수대와 함께 역동적이고 활기찬 한여름밤 체조광장을 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도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줄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 감자역병 발생 주의보

최근 잦은 비와 저온현상으로 인한 감자역병 발생이 우려되어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원중)에서는 감자 재배농가 약 1,500여명을 대상으로 역병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원의 봄감자 재배면적은 약 300ha로 작년대비 약 10%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상청(2018.5.25.현재)에 따르면 5월 남원지역 평균 기온은 17.4도이며, 강수량은 90.4mm로 전년(29.8mm)보다 303% 많고, 평년(79.4mm)보다 113% 많았는데, 감자 역병은 기온이 20°C내외에서 습도 80% 이상의 조건이 7일이상 지속될 경우 잘 발생하고 발생후 7일 이내에 주변 재배지역으로 빠르게 퍼져 감자농사를 망치는 것으로, 역병이 발생한 감자밭은 심할 경우 감자수확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감자농사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초 증상은 흔히 하엽에서 황색 내지 진녹색의 작은 반점이 생기고 나중에는 흑색으로 변한다. 또한, 잎 뒷면에 전형적인 곰팡이 균사가 나타나는 것이 역병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적용약제를 이용하여 역병 발생전에는 보호용 살균제를, 발생 후에는 치료용 살균제를 7~10일 간격으로 약액이 잎 뒷면에도 고루 묻도록 충분히 살포해야 한다. 더불어, 감자역병은 살균제를 이용해 방제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약제를 번갈아 사용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민의 자존심을 지켜 낼 것"

박기봉 임실군수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

무소속 박기봉 임실군수 후보가 28일 오전10시 임실터미널 건너편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6.13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기봉 후보와 공직생활을 함께 했던 선·후배·동료들과 임실지역 주민 지지자들과 남원 부시장을 역임 하면서 좋은 인연을 맺어온 남원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박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여 간을 하루도 쉬 없이 지역 곳곳을 돌며 직접 귀로 들어 임실군민의 간절한 소망을 잘 알고 있다"며 "34년 지방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임실군민의 자존심을 지켜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박기봉 후보는 ▲어르신

행복한 임실 ▲부자 농업인 만들기 ▲군민 삶의 질 향상 ▲사람과 돈이 모이는 임실 ▲역을하고 소외받는 사람 없는 임실 등 5대 핵심 공약과 세부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끝으로 박 후보는 열린행정, 현장행정을 통해 임실군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군수 적임자임을 피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